

# 썸통더위엔 공포 스릴러가 제 맞이지~

## 등골 오싹해지는 공포 연극·영화 잇따라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연극이나 영화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유·스퀘어 문화관 공포연극 '디데이'

지난해 공포연극 '6호실'로 최초의 공포연극 붐을 일으킨 유·스퀘어 문화관은 올해는 더 무서운 작품을 준비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9월 26일까지 동산아트홀에서 스릴러 공포연극 '디데이(Death-Day)'를 선보인다.

'디데이'는 희대의 살인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해나와 출소한 가해자 김현수, 그리고 그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담아낸 스릴러 공포극이다.

8년 전, 희대의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해나는 당시 겪은 충격으로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어느 날, 뉴스에서 가해자 김현수의 출소 소식이 들려오고, 해나는

부분 기억 상실증과 더불어 매일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된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해나는 나날이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고 김현수는 출소 직후 정신병원을 찾아온다.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7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3시 공연. 티켓 가격 4만원.

◇공포심리미스터리 연극 '홍터'

금남로 1가 타임빌딩 4층에 자리한 충장아트홀에서는 공포심리미스터리연극 '홍터' 광주공연이 진행 중이다.

'홍터'는 과거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외면해 지워버린 남자와, 사고로 인한 죄책감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두 주인공은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과거의 사건이 파헤쳐 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관객들은 두 남자의 선택을 지켜보며, 만약 저 상황에 자신이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문하게 된다.

탄탄한 줄거리와 배우 3명의 뛰어난 연기, 소극장을 압도하는 음향효과가 90분 동안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만 14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 화·금 밤 8시, 주말 오후 3시·6시. 티켓 가격 3만원.

◇간담 서늘하게 하는 공포영화들

극장가에서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 영화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9일에는 '그루지: 죽은자의 저주'가 개봉한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루지' (The Grudge)와는 전혀 다른 시리즈로, 일본과 미국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2016년 제작됐다. 최근 아시아 영화계에서 공포물이 다수 제작되는 가운데, 전작에서 '영혼이탈'을 다룬 돈 호에 감독의 작품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생일 파티를 위해 친구들과 저택을 빌린 엘리스. 땀에 흠뻑 젖은 아이 울음소리에 이끌려 간 다락방에서 공포를 느낀 준과 엘리스는 저택을 탈출하려 열쇠를 찾지만 끝나지 않은 원혼의 저주에 휩싸이게 되고 원인 모를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여름을 강타한 '부산행'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프랑스 좀비가 물려온다. '워킹 데드 나잇'은 좀비때 속에서 홀로 고립된 샘의 생존기를 다룬다. 여타 좀비 영화에 비해 잔잔하며 디테일이 살아있다. 또, 훌륭한 영상미와 반전을 통한 메시지 전달로 인해 독특한 연출력을 자랑한다.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소재를 계속해서 뒤늦게 놀라운 흡입력과 긴장감을 자극시킨다.

제스와 친구들은 거듭되는 반전 속 크루즈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 제스 일행은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지만 운 좋게도 호화 유람선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승선한다. 하지만 배 안에는 사람의 흔적만 느껴질 뿐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바다 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하다.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반복되는 죽음과 공포의 순간, 정해진 운명의 패턴을 바꿔야만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영화 '트라이앵글'은 지난 2009년 호주와 영국에서 개봉된 후, 9년만에 국내 스크린에 오른다. 미스터리한 살인마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오는 29일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이보람 기자



영화 '워킹 데드 나잇'



연극 '디데이'



지난 4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시립오페라단 '아이디' 커튼콜 장면.

## 광주문예회관 249억 들여 내년부터 리모델링

### 10월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축제 등 내실 다지기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그동안 제기돼 왔던 공연장 및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 사업비 249억(국비 20억, 시비 229억)을 들여 내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대극장 무대, 객석, 천정 등

내부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다음해에는 대극장 조명 및 음향 등 무대장비를 교체한다. 2021년에는 소극장 내부시설과 무대장비 교체, 2022년에는 기계장비 교체 및 주차장 정비에 들어간다.

광주문예회관은 4년에 걸친 리모델링

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대표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회관 측은 또 문화회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관람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열기로 했다.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진행할 축제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 발레

단, 합창단, 극단, 창극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총 21개의 공연을 대극장과 소극장, 야외극장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문예회관 27주년을 짚어보는 아카이브전 '시간의 흔적'과 야외영화상영, 아트마켓 등의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문예회관 서병천 관장은 "시민에게 더 나은 공연 관람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고, 시립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축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똑딱똑딱 내 손으로 만드는 아지트

### '어린이목수축제' 참가자 모집...초등 4~6년 대상

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어린이놀이도시 '어린이목수축제'가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린다.

어린이목수축제는 단순한 체험캠프가 아닌 노동과 놀이를 통해 가치를 깨달으며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하면서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노작형 문화예술교육 캠프다.

지역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정민룡(북구문화의집), 고영준(정소년실디자인센터), 백민씨(놀이패시픽)가 참여한다.

또, 신양호, 박문중, 이재민, 박성완, 이재호, 정다운, 배수민 등 7명의 지역 예술가가 참여해 어린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각의 공간을 연결시켜 자신들의 아지트 공간을 만들어낸다. 캠프 2일째 저녁에는 완성된 공간에 가족과 친구 및 일반 시민을 초대해 목수가든파티도 개최될 예정이다.

총괄기획을 맡은 정민룡 관장은 "이번 캠프가 어린이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끈기와 인내를 몸으로 느꼈으면 한다"며 "결과를 위해 끈질기게 달려붙어 해결하는 노작 경험을 통해 자신의 힘과 경험에 의지한 공작적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참가신청은 광주문화재단 또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gjarte@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초등 학교 4-6학년 어린이 선착순 70명이다. 참가비는 무료.

한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의 자체 기획사업인 이번 예술캠프 '어린이목수축제'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가 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주시립미술관이 협력한다.

문의 062-670-5763. /이보람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4633-179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